

유연 구조물에서 반력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모드의 수

김 주형[†] · 김 상섭^{*}

On the Number of Modes Required to Observe Forces in Flexible Structures

Joo Hyung Kim, Sang Sup Kim

Key Words : Covergence Rates(수렴율), Kalman Filter(칼만 필터), Reaction Force(반력), State Estimator(상태변수추정기), Observer(관측기), Residual Flexibility Matrix(잔류 유연성 행렬)

Abstract

The number of required modes to provide accurate force information in a truncated model of a flexible structure i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modal truncation of a distributed parameter system, the difference in convergence rates between displacements and forces is discussed. The residual flexibility, a term from past literature, is used to recapture some of the lost force information in a truncated model.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of a study where the residual flexibility is used in conjunction with a Kalman filter so that accurate force information may be obtained from a small set of displacement measurements with a reduced-order model. The motivation for this paper is to be able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about unmeasurable dynamic reaction forces in a rotating machine for diagnostic and control purposes.

기호설명

- M/K:** 질량/강성 행렬
- Φ_t/Φ_i :** 유지/절단된 직교정규 행렬
- w(t)/q(t):** 물리적/모달 좌표 벡터
- A:** 대각선 행렬
- x_s:** 유지된 모달좌표의 상태변수 벡터
- y(t):** 출력(변위 혹은 반력)
- u(t)/f(t):** 제어/외란 입력
- η:** 백색 잡음 입력
- x_f:** 외란 상태변수 벡터
- ̂x / x - ̂x:** 추정된 상태변수 벡터/오차항
- G:** 추정기 개인 행렬

1. 서 론

실제로 구조물을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무한대의 자유도를 갖는 균일 연속 분포계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많은 수 모드의 모델을 취급하기를 소원하는 반면에, 제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고려와 제어 법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수 모드의 모델을 취급해야 하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구조 제어의 적용에서 현실과의 타협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일어난다. 제어에 사용된 실제의 모델이 제어 목적에 맞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모드 절단(modal truncation)은 유지하고자 하는(retained) 모드와 무시하는(truncated) 모드를 구분하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다. 여기서, 구분하는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제어 시스템의

[†] 국민대 자동차전문 대학원
^{*} 국민대 자동차전문 대학원

계산능력, 감지기와 가진기의 대역폭, 모델의 정확도, 다른 실질적인 이유들에 기초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 제어의 목적은 변위, 속도, 혹은 가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드 절단이 큰 효용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델이 된 변위는 작은 수의 모드만 가지고서 빨리 실제의 변위에 접근한다.

이 논문은 진동하는 계의 변위와 반력에 관한 모델 사이에 차이점을 살펴보고, 반력의 모델이 변위의 모델보다 같은 비교 기준에서는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에 따르는 토의는 전체 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일부 모드만을 선택한다면, 잃어버린 반력에 대한 정보를 보충할 방법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동하는 계에서 반력들과 변위들이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을 때,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 두 데이터가 비교 검토되었다.

이 논문에 대한 동기는 진동하는 구조물에서 힘을 제어하려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1,2,3). 예를 들면, 진동고립은 진동하는 기계의 어떤 위치에서 전달하는 힘을 줄임으로서 얻어 질 수 있다⁽⁴⁾. 따라서, 회전하는 물체로부터 베어링 속에서의 과도한 동적 반력으로 기인한 파손이 지지 베어링으로부터 일어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예가 Figure 1에 나타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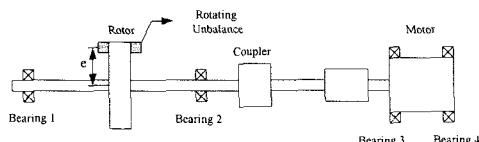


Fig. 1 Schematic of Typical Rotating Machinery System

Figure 1에서 커플러는 횡굽힘에 약하고, 비틀림에는 강한 성질을 갖고 있어, 진동은 두개의 직각 평면으로 비연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간단한 증명을 위하여 실험장치는 축 진동의 한 단면만을 고려할 것이다.

2. 모드가 절단된 모델에서의 변위와 힘

2.1 모드 절단

균일분포 연속계의 선형 무감쇠 모델에 대한 식은 유한요소법을 인용하여 쓰여 질 수 있는데,

$$\begin{bmatrix} \mathbf{M} & \mathbf{M}^T cc \\ \mathbf{M}_{cc} & \mathbf{M}_c \end{bmatrix} \begin{bmatrix} \ddot{\mathbf{w}} \\ \ddot{\mathbf{w}}_c \end{bmatrix} + \begin{bmatrix} \mathbf{K} & \mathbf{K}^T cc \\ \mathbf{K}_{cc} & \mathbf{K}_c \end{bmatrix} \begin{bmatrix} \mathbf{w} \\ \mathbf{w}_c \end{bmatrix} = \begin{bmatrix} \mathbf{F} \\ \mathbf{F}_c \end{bmatrix} \quad (1)$$

여기서, 변위 좌표 \mathbf{w} 는 계의 절점 변위들을 나타낸 것이고, \mathbf{w}_c 는 구속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mathbf{F} 와 \mathbf{F}_c 는 외력으로 가해 준 힘과 반력으로 각각 정의된다. 주어진 경계 조건에 따라서 식 (1)은 두개의 방정식으로 나누어 진다.

$$\mathbf{M}\ddot{\mathbf{w}} + \mathbf{K}\mathbf{w} = \mathbf{F} \quad (2)$$

과

$$\mathbf{M}_{cc}\ddot{\mathbf{w}} + \mathbf{K}_{cc}\mathbf{w} = \mathbf{F}_c \quad (3)$$

식 (3)에서 \mathbf{F}_c 는 지점의 전단력과 모멘트로 주어지고, 식 (2)의 벡터를 식 (3)에다 치환하면, 다음 형태로 주어 질 수 있다.

$$\begin{aligned} \mathbf{F}_c &= \mathbf{M}_{cc} \left\{ \mathbf{M}^{-1} (\mathbf{F} - \mathbf{K}\mathbf{w}) \right\} + \mathbf{K}_{cc}\mathbf{w} \\ &= (\mathbf{K}_{cc} - \mathbf{M}_{cc}\mathbf{M}^{-1}\mathbf{K})\mathbf{w} + \mathbf{M}_{cc}\mathbf{M}^{-1}\mathbf{F} \end{aligned} \quad (4)$$

이 반력은 변위 벡터 \mathbf{w} 의 정확도에 의존한다. 처음으로 운동 방정식을 진동형 변환을 가진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변환식을 고려하면,

$$\mathbf{w}(t) = \Phi \mathbf{q}(t) \quad (5)$$

여기서 Φ 는 계의 직교정규 진동형 행렬이고 $\mathbf{q}(t)$ 는 진동형 좌표의 벡터이다. 진동형 벡터 $\mathbf{q}(t)$ 는 $\mathbf{q} = [q_r^T \ q_t^T]^T$ 로 표현 되는데, r 과 t 은 유지된 모드와 제거된 모드로 각각 정의 된다. 물리적 좌표 벡터는 유지된 모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데

$$\begin{aligned} \mathbf{w}(t) &= [\Phi_r \ \Phi_t] \begin{bmatrix} q_r \\ q_t \end{bmatrix] \\ &= [\Phi_r q_r + \Phi_t q_t] \end{aligned} \quad (6)$$

변위 $\mathbf{w}(t)$ 의 모달 표현인 식 (6)을 식 (2)에 치환한 다음, 모드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쓰여 질 수 있다

$$\begin{bmatrix} \mathbf{I}_r & \mathbf{0} \\ \mathbf{0} & \mathbf{I}_t \end{bmatrix} \begin{bmatrix} \ddot{\mathbf{q}}_r \\ \ddot{\mathbf{q}}_t \end{bmatrix} + \begin{bmatrix} \Lambda_r & \mathbf{0} \\ \mathbf{0} & \Lambda_t \end{bmatrix} \begin{bmatrix} \mathbf{q}_r \\ \mathbf{q}_t \end{bmatrix} = \begin{bmatrix} \Phi_r^T \\ \Phi_t^T \end{bmatrix} \mathbf{F} \quad (7)$$

\mathbf{I}_r 과 \mathbf{I}_t 은 대각선상에 1의 값을 갖는 단위 행렬이고, Λ_r 과 Λ_t 은 대각선상의 값을 갖는 행렬이다. 처음으로 방정식은 비연성되기 때문에, 모달 가속도 벡터는 유지된 모드만 가지고 다음과 같이 쓰여 질 수 있다.

$$\ddot{\mathbf{q}}_r = \Phi_r^T \mathbf{F} - \Lambda_r \mathbf{q}_r \quad (8)$$

물리적 좌표 벡터는 유지된 모드를 사용하고 무시하는 모드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데

$$\mathbf{w} = \Phi_r \mathbf{q}_r \quad (9)$$

이 물리적 좌표 $\mathbf{w}(t)$ 는 진동형 표현을 사용하여 식 (4)에 반력을 나타내어 질 수 있다.

$$\mathbf{F}_{cc} = (\mathbf{K}_{cc} - \mathbf{M}_{cc}\mathbf{M}^{-1}\mathbf{K})\Phi_r \mathbf{q}_r + \mathbf{M}_{cc}\mathbf{M}^{-1}\mathbf{F} \quad (10)$$

간단한 예제로서 Figure 2는 정현파 입력이 중간에 작용하고 있는 단순 지지 보에서 중간 변위와 양쪽 지지 점의 반력에 대해 정상상태 진폭을 보여 주었다. Figure 2에서 선택되는 모드를 증가하면 할수록 변위와 반력은 수렴한다. 그러나 변위는 단지 몇 개의 모드만을 가지고 수렴하는 반면에, 반력은 40개의 모드를 포함하고 나서도 차이를 보인다. Figure 2에서 변위와 반력 모두가 비교하기 위해 1.0m 혹은 1.0N으로 정규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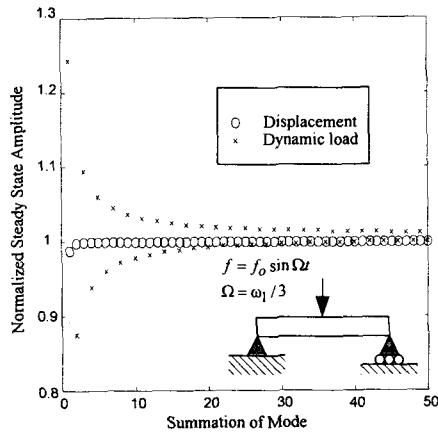


Fig. 2 Example of different rates of convergence of deflection and force for a continuous system as more modes are added

2.2 잔류 유연성 행렬을 가지고 절단된 모드의 잃어버린 정보를 복구하는 법
식 (7)의 모달 진폭에 대하여 풀고, 식 (6)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mathbf{w} &= [\Phi_r \quad \Phi_t] \begin{bmatrix} \Lambda_r^{-1} & \mathbf{0} \\ \mathbf{0} & \Lambda_t^{-1} \end{bmatrix} \left\{ \begin{bmatrix} \Phi_r^T \\ \Phi_t^T \end{bmatrix} \mathbf{F} - \begin{bmatrix} \ddot{\mathbf{q}}_r \\ \ddot{\mathbf{q}}_t \end{bmatrix} \right\} \\ &= [\Phi_r \Lambda_r^{-1} \quad \Phi_t \Lambda_t^{-1}] \left\{ \begin{bmatrix} \Phi_r^T \\ \Phi_t^T \end{bmatrix} \mathbf{F} - \begin{bmatrix} \ddot{\mathbf{q}}_r \\ \ddot{\mathbf{q}}_t \end{bmatrix} \right\} \\ &= (\Phi_r \Lambda_r^{-1} \Phi_r^T + \Phi_t \Lambda_t^{-1} \Phi_t^T) \mathbf{F} - [\Phi_r \Lambda_r^{-1} \quad \Phi_t \Lambda_t^{-1}] \begin{bmatrix} \ddot{\mathbf{q}}_r \\ \ddot{\mathbf{q}}_t \end{bmatrix} \end{aligned} \quad (11)$$

여기서, $\Phi_r \Lambda_r^{-1} \Phi_r^T + \Phi_t \Lambda_t^{-1} \Phi_t^T = \mathbf{K}^{-1}$ 와 식 (8)을 고려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mathbf{w} &= \mathbf{K}^{-1} \mathbf{F} - [\Phi_r \Lambda_r^{-1} \quad \Phi_t \Lambda_t^{-1}] \begin{bmatrix} \Phi_r^T \mathbf{F} - \Lambda_r \mathbf{q}_r \\ \ddot{\mathbf{q}}_t \end{bmatrix} \\ &= \mathbf{K}^{-1} \mathbf{F} - \Phi_r \Lambda_r^{-1} \Phi_r^T \mathbf{F} + \Phi_r \mathbf{q}_r - \Phi_t \Lambda_t^{-1} \ddot{\mathbf{q}}_t \end{aligned} \quad (12)$$

만약에 제거된 모드의 가속도를 무시한다면, 식 (9) 속의 변위 벡터는 다음과 같이 쓰여 질 수 있는 데

$$\mathbf{w} = (\mathbf{K}^{-1} - \Phi_r \Lambda_r^{-1} \Phi_r^T) \mathbf{F} + \Phi_r \mathbf{q}_r \quad (13)$$

식 (13) 속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항이 잔류 유연성 행렬이고 제거된 모드의 정적인 효과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⁶⁾. 마지막으로, 더 정확한 반력을 평가를 위해 잔류 유연성 행렬이 포함된 식 (13)을 식 (10) 속에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mathbf{F}_{cc} &= (\mathbf{K}_{cc} - \mathbf{M}_{cc} \mathbf{M}^{-1} \mathbf{K}) \left(\mathbf{K}^{-1} - \Phi_r \Lambda_r^{-1} \Phi_r^T \right) \mathbf{F} + \Phi_r \mathbf{q}_r \\ &\quad + \mathbf{M}_{cc} \mathbf{M}^{-1} \mathbf{F} \end{aligned} \quad (14)$$

3. 반력에서 잔류 유연성 행렬의 사용

이 단원에서는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간단히 추정기에 대한 언급과 잔류 유연성 행렬의 사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3.1 추정기 방정식의 유도

식 (8) 속에서 시험 모델은 유지된 모드로서 표현된다.

$$\ddot{\mathbf{q}}_r + \Lambda_r \mathbf{q}_r = \Phi_r^T (\mathbf{F}_f \mathbf{f}(t) + \mathbf{F}_u \mathbf{u}(t)) \quad (15)$$

여기서, 제어 입력항은 외란과 제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주어진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mathbf{x} = [\dot{\mathbf{q}}_r^T \quad \ddot{\mathbf{q}}_r^T]^T$, 모달 방정식은 상태변수 형태로 전개된다.

$$\begin{aligned} \dot{\mathbf{x}} &= \begin{bmatrix} \mathbf{0} & \mathbf{I} \\ -\Lambda_r & \mathbf{0} \end{bmatrix} \mathbf{x} + \begin{bmatrix} \mathbf{0} \\ \Phi_r^T \end{bmatrix} \mathbf{u} + \begin{bmatrix} \mathbf{0} \\ \Phi_r^T \end{bmatrix} \mathbf{f} \\ &= \mathbf{Ax} + \mathbf{Bu} + \mathbf{Lf} \\ \mathbf{y} &= \mathbf{Cx} \end{aligned} \quad (16)$$

$\mathbf{u}(t)$ 는 제어 입력을 포함하고, $\mathbf{f}(t)$ 는 외란 입력, \mathbf{C} 행렬은 모델에서 유지된 모드로 구성된 위치 측정과 관련된 출력 행렬로 정의 된다. 식 (16)에 존재하는 외란은 조화 함수로 가정되고, 조화 형태를 지닌 필터를 통해 백색 잡음을 통과함으로서 상태 방정식 형태로 얻어 질 수도 있다.

$$\begin{aligned} \dot{\mathbf{x}}_f &= \frac{d}{dt} \begin{bmatrix} \mathbf{f} \\ \dot{\mathbf{f}} \end{bmatrix} = \begin{bmatrix} \mathbf{0} & \mathbf{I} \\ -\omega_d^2 & \mathbf{0} \end{bmatrix} \mathbf{x}_f + \begin{bmatrix} \mathbf{0} \\ \mathbf{1} \end{bmatrix} \eta \\ &= \mathbf{A}_f \mathbf{x}_f + \mathbf{B}_f \eta \end{aligned} \quad (17)$$

여기서 η 는 백색 잡음 입력, \mathbf{A}_f 와 \mathbf{B}_f 는 외란과 관계된 행렬이고, \mathbf{x}_f 는 외란 나타내는 상태 벡터이다. 반력을 추정하는 식 (16)은 식 (17)와 합쳐서 새로운 식 (18), (19)가 얻어진다⁽⁷⁾.

$$\begin{bmatrix} \dot{\mathbf{x}} \\ \dot{\mathbf{x}}_f \end{bmatrix} = \begin{bmatrix} \mathbf{A} & \mathbf{L}_f \\ \mathbf{0} & \mathbf{A}_f \end{bmatrix} \begin{bmatrix} \mathbf{x} \\ \mathbf{x}_f \end{bmatrix} + \begin{bmatrix} \mathbf{B} \\ \mathbf{0} \end{bmatrix} \mathbf{u} + \begin{bmatrix} \mathbf{0} \\ \mathbf{B}_f \end{bmatrix} \eta \quad (18)$$

$$\dot{\mathbf{x}}_a = \mathbf{A}_a \mathbf{x}_a + \mathbf{B}_a \mathbf{u} + \mathbf{L}_a \eta \quad (19)$$

여기서 $\mathbf{L}_f = [\mathbf{L} \ 0]$. 식 (19)은 식 (18)을 더 줄인 형태로 나타내는데, $\mathbf{x}_a = [\mathbf{x} \ \mathbf{x}_f]^T$ 는 상태 벡터를 나타내고, \mathbf{A}_a , \mathbf{B}_a , \mathbf{L}_a 은 식 (18)의 대응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3.2 모든 상태변수를 추정하는 추정기와 반력 평가

식 (14)에 주어진 형태의 반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상태 변수 \mathbf{x}_a 가 알려져야 한다. 이를 모든 상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추정기를 이용한 필요한 상태 변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dot{\hat{\mathbf{x}}}_a = \mathbf{A}_a \hat{\mathbf{x}}_a + \mathbf{B}_a \mathbf{u} + \mathbf{G}(\mathbf{y} - \mathbf{C}\hat{\mathbf{x}}_a) \quad (20)$$

여기서, $\hat{\mathbf{x}}_a$ 는 상태 변수의 추정치라고 표현되고, \mathbf{y} 는 계의 출력, \mathbf{G} 는 추정기 개인 상수이다⁽⁶⁾. 식 (20)에서 백색 잡음 입력을 사용하여, 추정기 개인 행렬은 LQG (linear quadratic gaussian)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7,8). 식 (20)을 칼만 필터 추정기라고 하고, 추정기 개인 행렬은 추정 오차 항 $\mathbf{x}_a - \hat{\mathbf{x}}_a$ 을 잡음에 관하여 최소화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반력을 제거된 모드로부터 잔류 유연성 행렬 소개 함으로서 식 (21)같이 쓰여 질 수 있다.

$$\begin{aligned} \mathbf{F}_c &= [(\mathbf{K}_{cc} - \mathbf{M}_{cc} \mathbf{M}^{-1} \mathbf{K}) \Phi \ 0] \quad (21) \\ & (\mathbf{K}_{cc} - \mathbf{M}_{cc} \mathbf{M}^{-1} \mathbf{K})(\mathbf{K}_{cc} - \Phi \Lambda_r^{-1} \Phi^T) + \mathbf{M}_{cc} \mathbf{M}^{-1} \mathbf{F}_f \ 0] \begin{bmatrix} \hat{\mathbf{q}}_r^T \\ \hat{\mathbf{q}}_r^T \\ \hat{\mathbf{f}}^T \\ \hat{\mathbf{f}}^T \end{bmatrix} \\ & + [(\mathbf{K}_{cc} - \mathbf{M}_{cc} \mathbf{M}^{-1} \mathbf{K})(\mathbf{K}_{cc} - \Phi \Lambda_r^{-1} \Phi^T) + \mathbf{M}_{cc} \mathbf{M}^{-1}] \mathbf{F}_u \ u \end{aligned}$$

4. 수치해석 과 실험결과

Figure 3에서 적용된 외란으로 반력의 크기와 가진 주파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문이 처음으로 일어난다. 지점의 반력을 나타내는 한정된 모드를 가진 모델과 잔류 유연성 행렬을 포함한 한정된 모드를 가진 모델과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게, 비교 검토하였다. Figures 4~5는 이것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 Figure 4는 첫번째 지점의 반력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에, Figure 5는 보의 커플러 지역 근처의 두 번째 지점의 반력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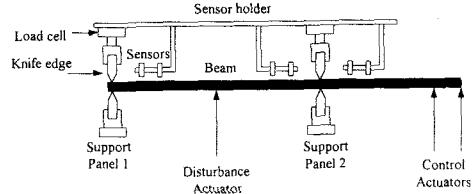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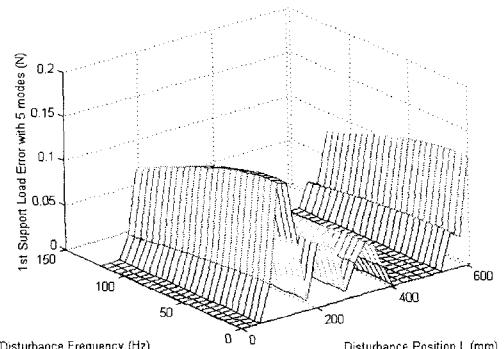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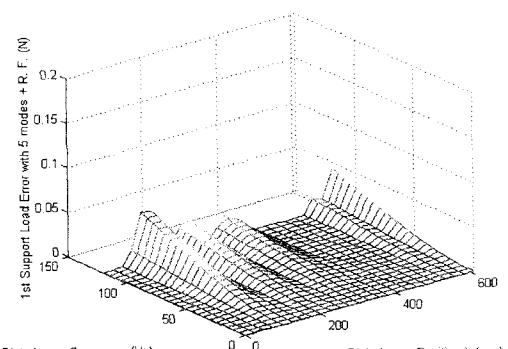


Fig. 3 Schematic of experimental test rig

Figures 4~5에서 있어서는 수직 축은 반력 모델에 있어서는 절대값을 가진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22 개 모드들을 고려한 반력과 한정된 모드를 사용하여 계산된 반력과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Figures 4~5(a)는 5 개의 모드만 가지고 계산된 결과이고, Figures 4~5(b)는 5 개의 모드와 잔류유연성 행렬을 포함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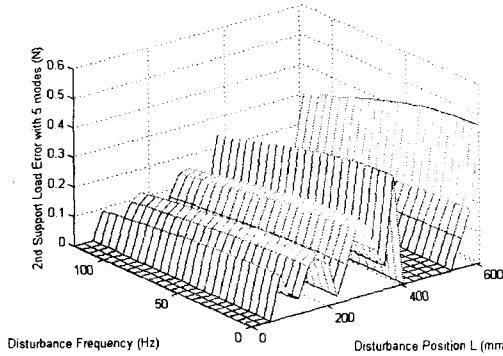


(a) error in 1st support force when truncated model is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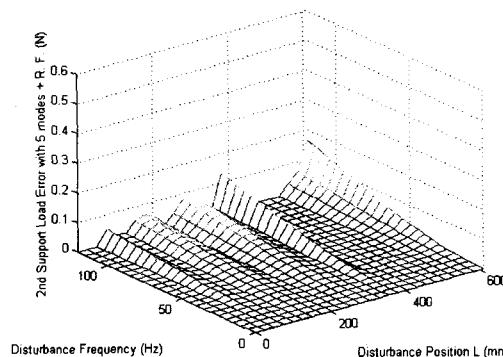


(b) error in 1st support force when truncated model plus residual flexibility is used

Fig. 4 Numerical results showing error in 1st support using truncated model, with and without residual flex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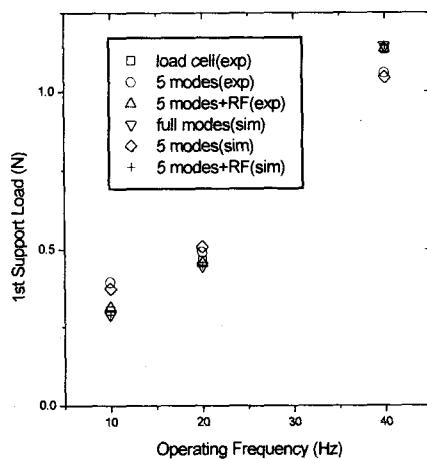


(a) Error in 2nd support force when truncated model is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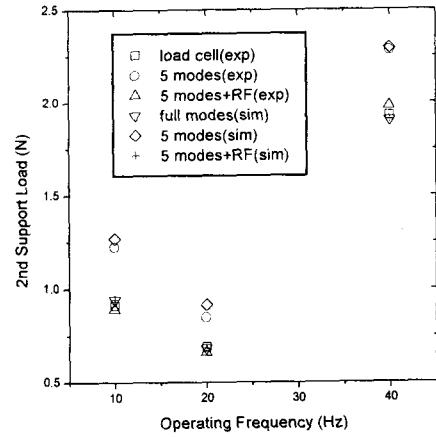


(b) Error in 2nd support force when truncated model plus residual flexibility is used

Fig. 5 Numerical results showing error in 2nd support using truncated model, with and without residual flex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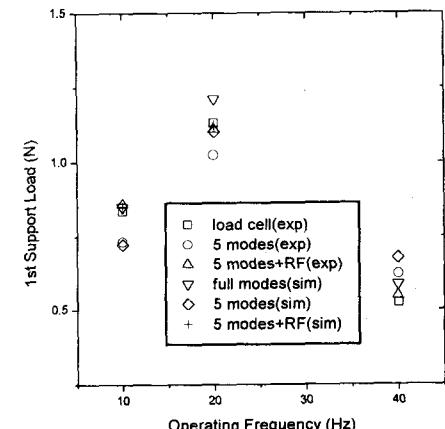
(a) Amplitude of load in suppo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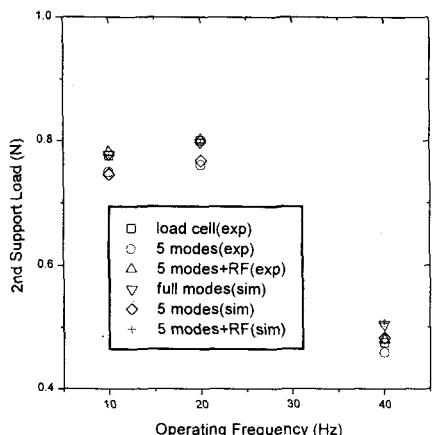
(b) Amplitude of load in support 2

Fig. 6 Experimental and numerical data for reaction forces comparing observed load with and without residual flexibility to actual loads. Disturbance is applied at free end of the beam

여기서, 지점과 지점 근처에는 현실적으로 외란을 적용할 수가 없다. Figures 4~5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잔류 유연성 행렬이 제한된 모드와 함께 사용 했을 때 오차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Figures 4~5에서 제한된 모드를 갖는 모델의 오차는 보의 중간 부분과 오버행된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지역은 로터와 커플러가 운행되는 곳과 대응되는 영역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언밸런스 매스와 제어 입력으로 인한 중요한 외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잔류 유연성 행렬은 이들 영역에서 크게 오차를 줄여 주는 것이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다.



(a) Amplitude of load in support 1



(b) Amplitude of load in support 2

Fig. 7 Experimental and numerical data for reaction forces comparing observed load with and without residual flexibility to actual loads. Disturbance is applied at midway between the supports.

이 같은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이 Figure 3에서 보여진 모델을 가지고 행하여 졌다. 외란이 지지점의 중앙에 존재할 때와 보의 오버행 부분에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경우는 세개의 다른 외란의 주파수 10, 20, 40 Hz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Figures 6~7은 오버행 부분의 지지 점의 반력과 단순 지지 점의 반력을 표시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이 다른 유지된 수의 모드를 가지고 사용 되었다. 각각의 그림은 6 개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지점의 정상상태 반력을 진폭을 표시한다; (1) 로드 셀에서부터의 직접적으로 측정된 방법, (2) 5 개의 모드로서 추정된 식 (10)로부터 계산된 방법, (3) 5 개의 모드(잔류 유연성 행렬을 포함)로부터 추정된 식 (14)에서 계산된 방법으로 나누어 진다.

위의 3 방법은 실험에 의한 데이터이고, 나머지 3 개의 방법에 대한 결과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데이터이다. 나머지는 (4) 총 22 개 모드를 사용한 모델을 채용한 방법, (5) 5 개의 모드를 사용한 모델을 채용한 방법, (6) 5 개의 모드와 잔류 유연성 행렬을 포함한 모델을 채용한 방법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가 여러 가지 시도에서 정확하게 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은 잡힌다. 5 개의 모드를 이용한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때때로 25%보다도 더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잔류 유연성

행렬은 모드를 더 사용하지 않고서도 정확한 결과를 추정하여 볼 수는 있다.

5. 결 론

변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충분히 유지된 모드는 반력을 나타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낮은 차수의 모델이 사용되는 구조역학에서 제어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결과에서 보여준 대로 실험으로부터의 결과와 수치해석으로부터의 결과는 거의 좋은 일치를 만들어 낸다. 잔류 유연성 행렬은 추정된 반력의 평가에서는 크게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1) Hanseen, O.E., and Bell, K., "On the Accuracy of Mode Superposition Analysis in Structural Dynamics," *Earthquake 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s*, Vol. 7, pp. 405-411, 1979.
- (2) Maddox, N.R., "On the Number of Modes Necessary for Accurate Response and Resulting Forces in Dynamic Analysis," *Transactions of the ASME, Journal of Applied Mechanics*, pp. 516-517, 1975.
- (3) Lewis, D.E., and P.E. Allaire, "Rotor to Base Control of Rotation Machinery to Minimize Transmitted Force," *Structural Control*, H.H.E. Leipholz (Ed.), Matimaa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The Netherlands, pp. 408-425, 1987.
- (4) Kim, J.H., Clark, W.W., and Marangoni, R.D., "Feedback Techniques for Minimizing Bearing Loads in Rotating Machinery," *Second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Active Control of Sound and Vibration*, Fuller, C.R., Silcox, R.J., and Burdisso, R.A. (Eds.), Blacksburg, VA, pp. 885-896, 1993.
- (5) Scribner, K.B., "Active Narrow Band Vibration Isolation of Machinery Noise from Resonant Substructures," M.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0.
- (6) Petyt, M., *Introduction to Finite Element Vibration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ston, MA, 1990.
- (7) Sievers, L., and Von Flotow, A.H., "Comparison and Extensions of Control Methods for Narrowband Disturbance Rejection," *Proceedings of the ASME Winter Annual Meeting*, Dallas, TX, 1990.
- (8) Stengel, R.F., *Stochastic Optimal Control*,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NY, 1986.